

标准韩国语

(3)

吉林省国家安全干部培训中心编

1994年 长春

标准韩国语

(3)

郑顺玉、金乃善 编著

吉林省国家安全干部培训中心编

1994年 长春

목 차

1. 집	(1)
2. 화법에 대하여	(7)
3. 신문과 잡지의 구실	(14)
4. 옛단지	(21)
5. 가난한 날의 행복	(27)
6. 딸각발이	(36)
7. 우리의 미래	(47)
8. 평화의 축제	(53)
9. 독선과 겸손	(58)
10. 나라의 힘과 경제.....	(67)
11. 다도해 기행	(76)
12. 전자 공장의 활기.....	(81)
13. 사상과 생활	(87)
14. 청춘 예찬	(96)
15. 독서	(103)
16. 김영삼 대통령이 북경대학교에서 한 연설	(108)
17. 공양미 삼백석	(114)
18. 出入國管理法.....	(126)
19. 外資導入法.....	(138)
20. 中國人力雇傭에關한協定書	(152)
번역문 (167)	(167)
부록 문교부 선정 상용한자 (1,800 자)	(247)

1. 집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중에서 세가지 중요한 것으로 입을 옷과 먹을 음식과 살 집을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인류가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전에는, 집에 대한 필요성이 음식이나 옷에 비하여 그렇게 절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부터 집은 사람에게 음식이나 옷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되었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비와 눈이나 다른 동물로부터의 해를 막기 위하여, 바위 밑이나 나무 위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굴속에서 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풀이나 흙, 또는 나무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고 점차 평평한 곳에다 기둥을 세우고 풀로 지붕을 이었다.

집의 모양은 그 지방의 풍토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였다. 추운 지방에서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집을 지었고 더운 지방에서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었다.

북극 가까이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는 겨울철이 되면 눈이 굳어서 된 얼음덩이를 큰 벽돌 모양으로 잘라 둥글게 쌓아서 얼음집을 짓고 살았다. 마치 웅기를 굽는 가마처럼 생겼는데 이것을 ‘이글루’라고 불렀다. 얼음집을 짓는다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우스운 일 같지만 방안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바깥의 찬 바람을 막아 주기때문에 생각보다는 보온의 효과가 컸다.

더운 지방인 아프리카 남쪽에 살고 있는 한 종족은 진흙을 둥근 기둥 모양으로 굳혀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풀로 지붕을 덮어서 집을 짓는다.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도 진흙으로 벽을 두껍게 만들고 문이 작은 집을 짓는다. 진흙으로 만든 집은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더운 지방 가운데서도 동남아시아 지방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진흙집 대신 대나무나 그 밖의 나무를 엮어서 집을 짓기도 하고 물 위에 기둥을 많이 세우고 높은 다락집을 짓기도 한다. 모두 통풍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밖에도 풀밭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은 일정한 집이 없이 그때 그때 이동하기에 편리한 천막을 친다. 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종족도 있으며, 일생을 배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나라의 집들은 움집에서 발전된 초가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나라의 재래식 집 구조는 크게 북부형과 남부형으로 나뉜다. 북부형은 한채의 건물안에 부엌, 안방, 아랫방, 뒷방, 대청, 헛간, 외양간 등이 포함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남부형은 안방, 웃방, 건너방, 대청, 부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채와 거기에 이어 다른 채의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부형이든 남부형이든 모두 겨울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북쪽이 남쪽보다 더 춥기 때문에 겹집을 지어서 그 안에 방이나 부엌, 외양간 등의 온갖 시설을 꾸민 것이 다를 뿐이다.

집을 짓는 재료는, 어느 지방이든지 그 지방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는 물자를 이용한다. 에스키모가 사는 한대 지방의 눈얼음, 동남 아시아의 대나무 등은 각기 그 지방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이다.

우리 나라의 집들도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했다. 나무와 흙과 짚 등이 집을 짓는 재료로 많이 쓰여 왔다. 진흙을 엮은 후에 기와를 이기도 하고 짚이나 새, 갈대를 엮어 덮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무로 골격을 짜고 수수대와 겨릅대로 외를 엮어 거기에 짚과 흙을 섞어 발라 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과학의 발달로 어느 나라에서나 새로운 재료를 많이 개발하여, 각종 철재, 시멘트, 유리, 피이보이시이, 단열재 등 과거와는 달리 광물질 재료를 많이 쓰고 있다.

또 건축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재래식 건축 양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서 재래식 집이 헐린 그 자리에 새로운 양옥이 들어서고 고층아파트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시골에서도 소득이 늘게 되자 집을 현대 생활에 맞게 개량하여, 재래식 집은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집들은 외형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종래 나무를 때던 아궁이를 개량하여 연탄을 뿔 수 있게 하였고 기름을 때거나 태양열을 이용하는 집에서는 아예 아궁이를 만들지 않고 있다.

집의 구조와 모양은 바로 그 국민의 문화수준과 정치생활의 척도가 된다. 집은 이제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는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지을 때에는 주위 환경, 위치, 채광 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날말풀이

정착(定着): ① 다른 물건에 단단히 붙어있음. ② 일정한 곳에 자리 잡아 떠나지 않음.

절실(切實): ① 실제로 꼭 들어 맞음. ② 아주 긴요함.

아득한: ① 끝없이 멀다. ② 까마 아득하게 오래다. ③ 막연하다.

평평하다(平平): ① 높낮이가 없이 널찍하고 판판하다. ② 특별한 것이 없이 예사롭고 평범하다.

풍토(風土): 기후와 토지의 상태, 사회생활의 상태. 의식 생활에 전전한 _____를 조성한다.

에스키모: 북미의 북극해 연안 등지에 사는 몽고 및 인디언계의 인종. 체구는 단소하고 살갗은 황색. 개화정도는 낮으며 어로, 수렵에 종사함.

마치: “갈다, 처럼, 듯” 따위와 함께 쓰이어(다른 것에 비거)거의 비슷하게 흡사.

_____외국에 온 것 같다.

이글루: 얼음과 눈 덩어리로 만든 에스키모인들의 집.

진흙: 빛갈이 붉은 차진 흙, 물기가 많은 흙

다락: 부엌이나 천장 사이의 공간에 이층처럼 만들어 물건을 넣어두게 된 곳.

다락 집: 다락처럼 지은 집.

유목민(遊牧民): 소, 말, 양 따위의 가축을 기르는 것을

업으로 삼고 물과 물을 따라 다니며 이주하면서 사는 민족.

천막(天幕):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하여 치는 서양식 장막.

재래식(在來式): 이전부터 있어 내려 온 식.

대청(大廳): 집채와 방과 방사이에 있는 큰 마루.

주변(周邊): 주위의 가장자리. _____에 나무가 많다.

이다: 기와와 벗짚으로 지붕을 덮다. _____기와를 이다.

골격(骨骼): ① 고등 동물에서 몸을 지탱하는 여러가지 뼈의 조직, 뼈대. ② 사물의 주요부분을 이루는 것. 건물의 _____을 이룬다.

거름: 겹질을 벗긴 삼대, 마골(麻骨).

외(檑): 흙을 바르기 위하여 벽속에 엮은 가는 나뭇가지, 뗏가지, 수수깡, 싸리, 잡목 따위. 윗가지, 윗가지로 엮는 것, 외로 쓰는 나무가지나 수수대.

단열재(斷熱材): 열의 전도를 막는 데 쓰이는 건축재료.
(석연유리, 섬유 따위)

연탄(煉炭): 무연탄가루에 피치, 해조, 석회 등을 섞어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연료. 잘 타게 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었음. 무연탄

척도(尺度): 자로 재는 길이의 표준, 무엇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의 기준. 가치의 _____

안식처(安息處): 편히 쉬는 곳. _____를 찾다.

채광(采光): 창을 내거나 하여 방을 밝게 함. _____이 좋은 방.

아궁이: 불을 때기 위하여 꾸며 만든 구멍.

내용 파악:

- 1)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 2)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된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 3) 에스키모가 얼음덩어리를 가지고 집을 짓는 까닭은 무엇인가?
- 4) 중동의 사막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에 왜 벽을 두껍게 하는가?
- 5) 비가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 6) 풍토에 따라 집을 짓는 재료나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7) 옛날과 오늘날에 사용된 건축재료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8) 요즘 한국에서 많이 짓고 있는 집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 9) 집의 구조와 모양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10) 새로 집을 지을 때에는 무엇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는가?

2. 화법(話法)에 대하여

박영순(樸榮順)

화법이란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음성 언어인 ‘말’로 나타내는데 필요한 기술이며 규칙이다. 이러한 기술이나 규칙은 언어 생활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영위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히 해서 명랑한 사회 생활 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말은 그 형식이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화와 같은 사적(私的)인 말과 연설(강연), 토의, 토론과 같은 공적(公的)인 말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대화란 좁은 의미로는 두 사람 이상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의사 소통(疏通) 전반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만 쓰기로 한다.

대화는 가정에서의 대화와 사회에서의 대화로도 나눌 수 있다.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대화자 사이에 원만하고 즐거운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화목하고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화자 사이에 예의를 지키고 신뢰감과 사랑을 가져야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려는 자세(姿勢)와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므로 “자기의 전인격(全人格)으로 말을 하라”고 한다. 전인격으로 말을 하라함은 진실하고 성

실하게 겸손(謙遜)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말을 하라는 뜻이다.

대화에서의 화제는, 듣는이의 지적 욕망(知的欲望)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거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것이거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대화가 끝난 뒤에 서로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는 자부심(自負心)과 보람을 가질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화를 할 때에는 필요 이상의 많은 말을 하지 않는것이 좋고, 같은 내용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즐겁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상대의 사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포부나 성격, 취미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가까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에서의 성공 여부가 좁게는 개인, 넓게는 국가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개인이나 사회간에 일어나는 반목이나 갈등은 말에 기인한 것이 많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역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생활에서 대화는 실로 중요하며 그 영향은 막대(莫大)한 것이다.

연설이나 강연은 한 연사가 여러 사람에게 자기의 의견, 주장, 알림 또는 부탁의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연설은 한 개인이 수십, 수백 명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청중(聽衆)을 설득하고 자기의 의견에 동조(同調)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설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청중 분석, 연설의 목적 결정, 주제와 제목 선정(選定), 자료 수집과 선택, 구성, 연설문 작성, 연습 등이 그것이다.

연사는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2, 3 분안에 청중과의 호흡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청중의 반응에 곧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음성을 탄력있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청중 하나 하나를 둘러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연설의 내용은 그 연설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지만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감동적이어서 청중에게 오래 남을 수 있고 청중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처칠이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영국 수상에 취임하여 의회(議會)에서 행한 연설에서 “내가 조국에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곤 피와 노력과 눈물과 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은 그 좋은 예이다.

사적인 대화에는 아주 능하면서도,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떨린다든지 하여,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어진 주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자신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으며 여유를 가지고서 말하는 훈련을 쌓으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게 된다.

토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협력해서 사고하는 과정이다.

토의는 그 형식에 따라 심포지엄, 패널 토의, 원탁 토의, 일반 회의 등으로 나뉜다. 어떠한 형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토의의 목적에 달려 있다.

일반 회의를 제외한 토의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얻지 못하고 각자 연구하고 조사한 것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고,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토의 참가자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발언을 할 때에는 진실한 태도로 간결하고 분명해야 한다.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대립적인 의견이 있을 때 각자 논리적 근거나 실제의 증거를 들어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는 말하기의 한 형태이다.

토론 참가자가 토론을 할 때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논거를 일단 인정한다.

둘째, 자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논리가 한층 가치가 있고 신뢰성이 있음을 분명하고 힘있게 말한다.

셋째, 상대방의 주장에서 옳지 않은 점을 찾아내고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그점을 지적한다. 이 때 절대로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끝까지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넷째, 자기 주장의 요점을 명백하게 되풀이 한다.

다섯째, 상대방을 이해시켜 자기 주장에 동의를 구한다.

여섯째, 시간의 제한을 지킨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 연설, 토의, 토론의 화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어떤 경우이든, 말을 할 때에는 정확한 발음으로 속도와 성량(聲量)을 알맞게 해서 표준말을 써야 한다. 특히 공적인 말에서는 이런 점에 더욱 유의(留意)해야 한다.

말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화제와 주제를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가 내세운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가를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간추리면서 자연스런 자세로 예절 바르게 듣고 다 들은 뒤에 의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고 간결하게 예절바른 자세로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말하는 것만 보고도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출신 지역, 교육 정도, 직업, 성격, 교양 정도 등을 대체로 알 수 있다. 이처럼, 말에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까지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는 생활의 대부분을 말로써 하게 되며, 말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크게 지배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은 말의 힘을 한 마디로 함축(含蓄)한 말이다.

화법은 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과 규칙으로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루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낱말

화법(話法)

영위(營爲)

원만히

명량한

의사소통(意思疏通)

신뢰감

막대

동조

탄력(彈力)

심포지엄(외래어)토론회

일단

성량

전인적

지적욕망(智的欲望)

호기심

자부심

가름한다

반목

간추리다

예절바르다

천냥값

함축

대인관계(對人關係)

구실

내용 파악

1. 화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 말하기의 종류는 크게 몇가지로 나누는가?
3. 성공적인 대화의 요건은 무엇 무엇들인가?
4. 토론 참가자들의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5.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6. 말하기가 왜 중요한지 자신이 겪었던 일을 근거로 말해 보자.

문법

1. -건 -건(조사)

(이거나)의 준 말

우유건 음료수건 마실 것을 주세요. 새건 길짐승이건 닥치는대로 잡는다.

2. -함 ('하다'의 명사형 종결어미)

노래를 잘 함.

-함은(연결어미)

공부를 잘 하라 함은 조국을 위해서이다.

3. -란-이란(조사)

① 정의를 내릴 때 쓰임

지구란 태양계를 딸린 행성이며 인류가 살고 있는 천체이다.

② -란--이란(어미)

‘라고 하는, -라고 한’ 이 줄어서 된 말
이게 아니란 말이냐?
나더러 끓어 앉으란 말이냐?

3. 신문과 잡지의 구실

천관우(千寬宇)

신 문

우리가 날마다 펴 보는 신문은 넓은 종이에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가까이는 내가 사는 고장의 이야기로부터 멀리는 외국의 이야기까지 나온다. 대개는 24 시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 가운데에는 불과 한두 시간 전의 것도 들어 있다.

현대 신문은 이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궁금한 소식을 모아서 편지 모양으로 하나하나 사람이 써 가지고 그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을 때에나 겨우 알려주곤 하였다. 그뒤에 인쇄술이 발달하여 비로소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일시에 알릴 수 있게 되었고, 채신 제도와 교통기관의 발달로 더욱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17세기 초부터 인쇄된 주간 신문이 나타났으며, 1660년 무렵에 처음으로 일간 신문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883년에 처음으로 한성순보(漢城旬報)라는 순한문 신문을 정부에서 열흘에 한번씩 발간하였고, 1896년에는 서재필이 ‘독립신문’이라는 최초의 민간 신문을 순한글로 1주일에 세번씩 발행하여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일간 신문이 나오기는 그 2년 뒤의 일이었다.

신문의 구실은 나라 안팎, 먼곳, 가까운 곳의 소식을 전